우리 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 "손으로 보는 세상" 발간100회 맞아

1995년 4월 창간된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소식지 '손으로 보는 세상'이 2008년 11월호로 발간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창간 기획 당시는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해 왔을 때 선뜻 내놓을만한 간단한 리플릿조차 없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새롭게 기획 발간한 소식지가 바로 '손으로 보는 세상' 이었습니다. 격월간지로 시작한 소식지는 1995년부터 월간지로 매월 독자들을 찾게 되었고, 100회를 거치는 동안 그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보는 세상' 창간호는 28페이지의 16절지 소책자 형태로, 다양한 시각장애인계 소식과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글들, 그리고 연합회의 사업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화보 형식의 8면 소식지로 탈바꿈해 지금까지 독자 여러분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13년 전 이 소식지를 기획·창간한 임경역 팀장(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식개선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소개 자료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손으로 보는 세상'은 시각장애인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획기적인 소식지였다"고 회상합니다. 비시각장애인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세상을 읽어갑니다. 100회를 맞은 시각장애인들의 '손으로 보는 세상'은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비시각장애인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NEWS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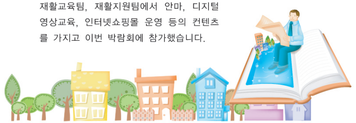
●●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

1. 기념사를 하고 있는 권인희 회장
2.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있는 수상자들
3. 기념식 후 문화행사도 가져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4. 윤석용, 손숙미, 박은수, 곽정숙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5. 시각장애인여성중창단 누리봄의 공연장면

●● 우리은행배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 2008 장애인 취업박람회

재활교육팀, 재활지원팀에서 안마, 디지털 영상교육,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OB맥주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한 텐덤싸이클 어울림축제

포커스

왼쪽부터 페레이라 대사, 크리스띠나 포르텔라 작가와 권인희 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예술 '침묵의 색' 전시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예술 '침묵의 색' 전시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브라질대사관 주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후원으로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나?"는 질문에 대해 브라질에서 온 조형예술가 끄리스찌나 뽀르뗄라(Cristina Portella) 작가는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시력의 부재가 곧 장애는 아니며, 예술은 느낌이고 그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기만하는 기존 관람의 틀을 깨고 관람객 자신들이 직접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면 오감을 통한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직접 작품을 설명해 관람의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침묵의 색"전시회를 주관한 브라질 대사관의 셀리나 두 발리 페레이라 대사.

권인희 회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 축사를 하고 있다.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나비를 형상화한 작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관람객들.